

요 약

다양한 형식의 개발협력사업에서 산출해내는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하여 계량화 한 후, 기관차원의 성과관리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지표 활용이 필요하다.

영국 개발 협력부(DFID)는 각 분야(sector)별, 사업 형태별 '수혜자 수를 기반으로 한 표준 지표'를 제공하여, 프로그램/프로젝트 별 산출물(output)들이 전체적으로 합산되도록 하고 있다.

이 방식은 분야(sector)와 기관 차원의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계량화하여 보여주기가 용이하여, 예산책임성 확보 및 대국민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. 이러한 수혜자 기반의 표준지표를 활용할 때의 한계는 '수혜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?'이다. 또한 현장에서 수혜자를 측정할 때, 방법론에 있어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다. 이에 측정 및 합산의 단계에서의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DFID는 실무자들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33개의 '지표 방법론 노트(indicator methodology notes)¹⁾'를 제공하고 있다.

현재 KOICA가 취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별 사업 산출물(output) 지표 방식은 다양한 사업의 특성 및 목적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, 분야(sector)별 전체성과를 계량화 하여 보여준다거나 기관차원의 개발협력 성과를 용이하게 보여주기에는 제약이 있다.

만약 KOICA가 수혜자 등을 기반으로 한 표준지표 양식을 채택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사업을 담당하는 사무소나 본부 담당자가 정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표준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DFID의 지표 방법론 노트와 같은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. △구체적으로 해당 지표와 연관된 활동(activity)은 어떠한 내용이며, △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지표를 취합하여야 하는지, △그리고 본부와 사무소가 지표 측정 및 합산에 있어 각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하는지도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. 특히 지식공유 사업(예, 개발컨설팅 프로그램

1)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publications/indicator-methodology-notes>(검색일:2015.11.30)

(DEEP) 등) 혹은 수원국 정부 제도 역량강화 등의 사업은 표준지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종류의 사업이므로, 이러한 예외의 경우에 대한 지침도 필요하다.

본부와 사무소의 역할에 있어, 특히 본부는 질 관리(Quality Control)의 책임을 지는 부서 혹은 담당자(advisor)가 필요하다. 표준지표 방식을 채택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공통된 지침을 제공하고, 지표의 품질을 관리해줄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.

시범적으로 표준지표를 적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며, 상대적으로 합산된 성과 제시의 필요성이 높은 KOICA의 브랜드 사업이나 새마을 운동 사업 등에 먼저 적용하여 볼 필요도 있다.